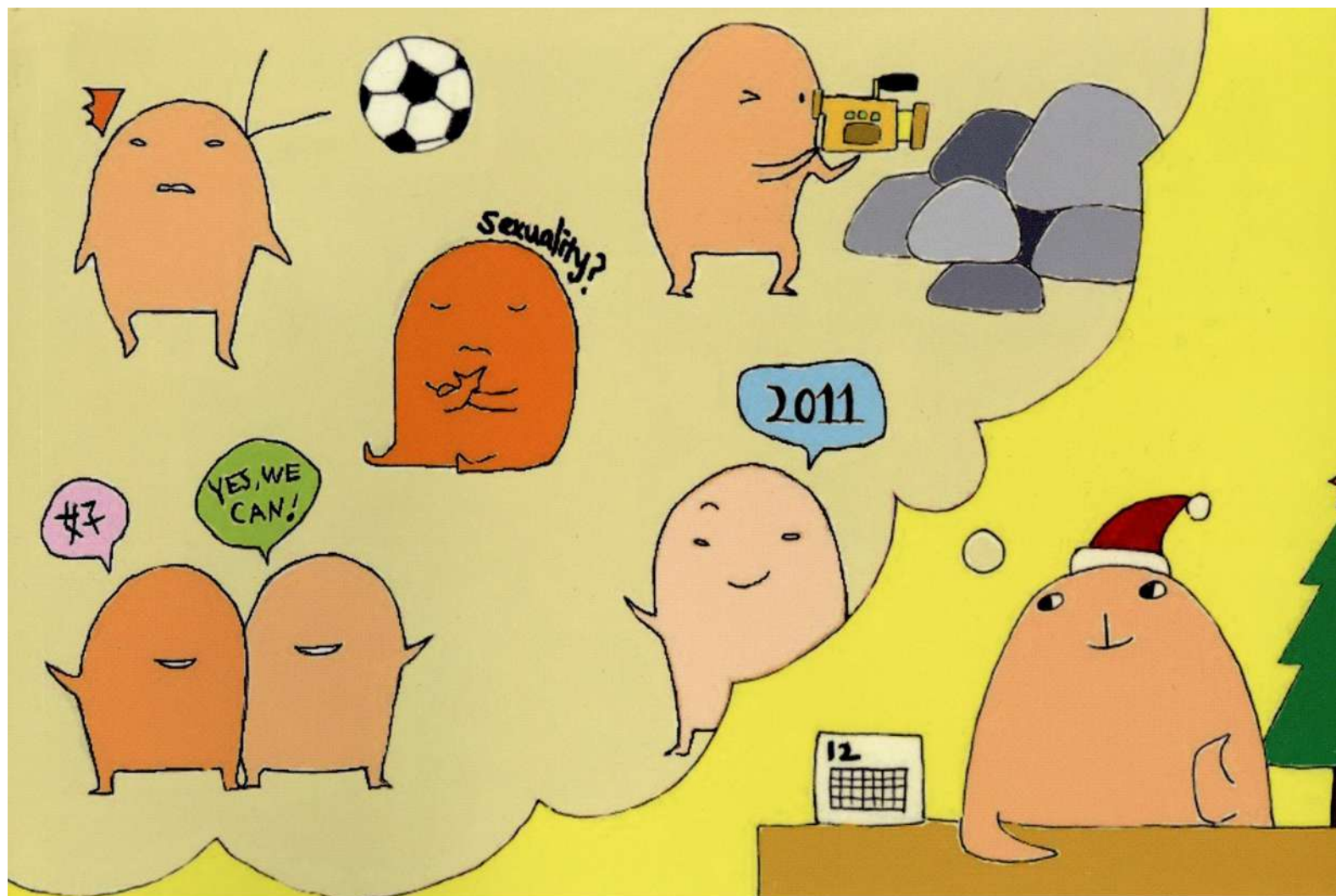




2011년 총학 · 총여 돌아보기

신촌의 작은 타코집 이야기

강제퇴거 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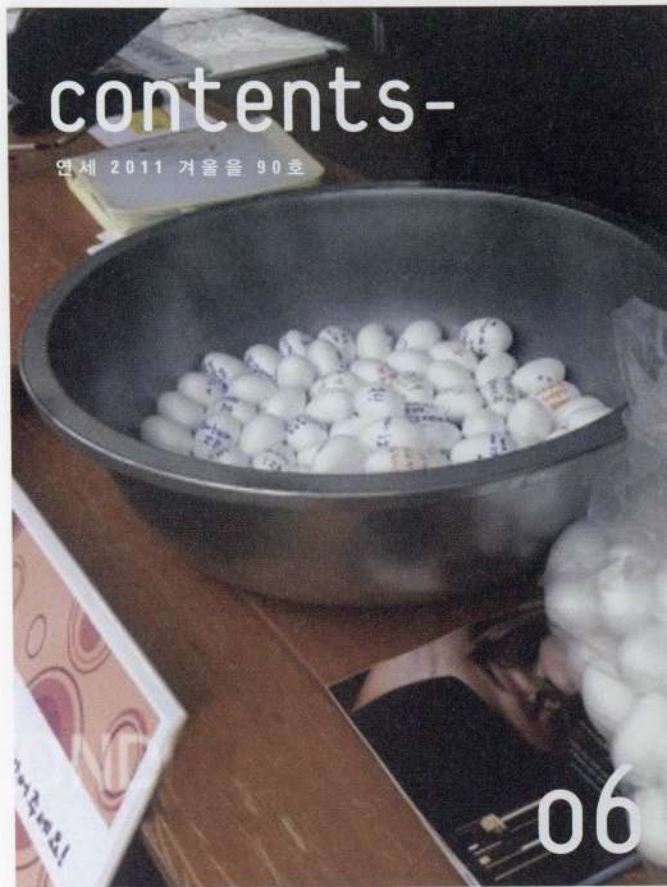
한양 성 소주자의 인권위원회 사건

내겐 너무 낯선 여성팀 스포츠

세브란스 훔쳐보기

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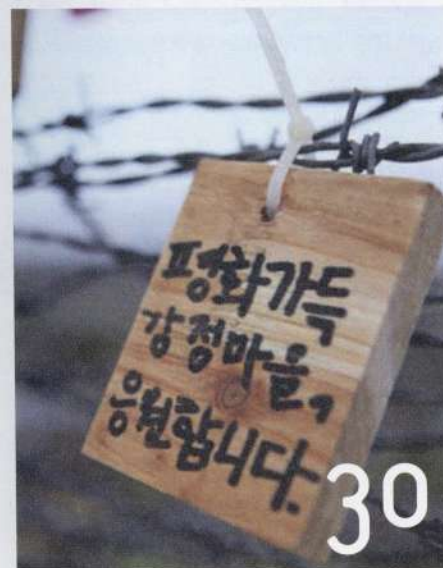
2011 겨울 90호



06
제 48대 총학생회 돌아보기

12
제 23대 총여학생회 돌아보기

18
신촌의 작은 타코집 이야기



24
강제퇴거 금지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집과 삶에 대한 이야기

30
달콤씹쓸한 강정잼

36
호락호락한 이성애주의

40
섹슈얼리티에
다수 논리같은 걸 끼었나?

48
내게 너무도 낯설었던 그녀들

56
세브란스...자니?

62
다하우에 다녀오다

66
beyond my life

70
어서오세요, 학생회관 311호에

72
R-note

80
아차차

83
편집후기

연세

2011 겨울 90호

편집위원

김영래(심리학과 07)

불가피(사회학과 07)

시우(심리/사회 07)

라빠(국어국문학과 08)

수습편집위원

여름(사학과 09)

우린(경영학과 11)

현우(경영학과 11)

엮은이

연세편집위원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11호 (우 120-749)

E-mail yonseiji@yonsei.ac.kr

twitter @yonseiji

홈페이지 yonseiji.net

발행일 2011년 12월

디자인 디자인여백 02.2279.9631

제 23대 총여학생회 돌아보기

수습편집위원 여름
summerly@yonsei.ac.kr

2010년 11월 제 23대 총여학생회 선거는 11년 만에 경선으로 치뤄졌습니다.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Questioning> 선본과 '실질적인 복지'를 내세우며 새로운 '여성운동'을 꺼내 들었던 <연세好>의 경합 구도는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궁경부암 백신할인 등의 복지공약은 많은 호응을 얻었고, 2010년 12월, <연세好>는 제 23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로 출범하게 됩니다.

23대 총여학생회는 기부와 자선활동의 비중을 높여 총여에 거리감을 지니고 있던 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남학우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다 가시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윗 페스티벌'과 '호락호락 문화제'에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미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총여의 '방향성'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23대 총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이들의 1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금활동과 자원봉사에 치중, '자선단체' 총여학생회?

올 한해 총여를 가장 많이 접했던 곳은 중도 앞 각종 모금행사 및 바자회였습니다. <연세好>는 유달리 많은 기부행사와 자선활동을 주도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화이트 앤 레드데이: 현실실천캠페인'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돕기 모금운동', '4박5일의 소록도 동행', '시열이에게 희망을', '캄보디아 빈곤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착한 사랑나누기 바자회' 등 늘 분주히 봉사활동과 모금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회 차원의 기부활동은 늘 해왔던 것이고, 유의미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기부와 자선활동이 주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점은 의아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총여가 자선단체가 된 것 같다."는 비아냥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총여는 "『여성적 특성』을 캠퍼스에 확산하는 사업의 일환"¹이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자선활동이 왜 '여성적 특성'으로 분류되는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취지가 드러나지도, 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1 큰따옴표 표시가 되어 "1" 기울어진 부분은 '연세'와의 인터뷰에서 23대 총여학생회장 박희진씨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6월 6-7일 중도앞에서 열린 착한 사랑나누기 바자회의 모습이다

© 연세好

진행된 사업들 역시 일회적인 이벤트성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도 앞에서 이루어진 기부사업과 바자회는 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고, 각 사업마다 꽤 많은 금액이 모여 유익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의 사업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산하기구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면 보다 지속적으로 학내와 밀접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문화제의 행사 중 하나였던 '행복한 결혼 만들기'에서는 가수 선의 초청강연이 진행되면서 기부의 일환으로 2만원의 참가비를 걷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참가비로 인해 학우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 행정력이 뒷받침 되었어야』

기부활동에서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 23대 총여가 전면에 내세웠던 여러 복지공약들은 내실 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23대 총여학생회가 중점적으로 다룬 공약 중 하나는 'one week-one day 클린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 전에 각 단과대마다 몇 차례 여휴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好>는 학기 초부터 소화가 없는 여휴에 소화를 설치하고, 상대와 문과대에 이불을 지급/교체하는 등 여휴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모든 건물의 여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의 한계가 분명한 공약이었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약한 행정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건강' 분야의 '유방암 무료 조기검진 서비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공약은 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이 제시되었을 당시부터 건강센터 측에서는 합의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행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띄워졌습니다. 이후 11월 초에 자궁경부암백신 할인행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받기엔 행사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삼성관과 종합관 사이의 산길에 가로등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기 초부터 부총장과 면담을 하고 설문조사를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지만 “오히려 산길에 불빛이 생기면 사람들의 통행을 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어” 가로등 설치를 무효화 하였다는 다소 허탈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가로등 대신 계단 설치를 문의하였다고 하니 다음 총여에서는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운동' 사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몇몇 사업에서는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총여는 '여기, 여미女美다'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 하나가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고민해 보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상'에 대해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사가 마련되었고,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책들을 비치했으며, 여성들에게 비누장미꽃을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회성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전 총여가 <여성제주간>을 만들어 한 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과 비교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학우는 이에 대해 “여성제에 관한 읽을거리들을 배포하거나, 학내 타 동아리나 기관들과 연계해 행사를 기획했다면 파급력이 더 컸을 것”²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동제 기간 이루어진 스윗 페스티벌의 행사 중 하나인 '기부&절주 노래방' 역시 피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노래를 부르는 참여자들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참가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술자리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래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절주문화를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술자리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내지 않고, 단순히 원인을 '술'로 귀결했다는 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술자리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남성중심적으로 흐르는 학내의 술문화를 이야기 했다면 더욱 깊이있는 고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 김재희 기자, <연세의 중심에서 새로운 여성성을 외치다>, 『연세춘추』 2011-03-14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세好>의 '여성운동'』

23대 총여가 새롭게 내세운 '여성운동'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봄, 나눔, 섬김, 포용 과 같은 가치가 여성의 특성이고,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이시대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가는 학생회', '남/녀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생회'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성적 특성'은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출마 당시부터 거듭해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연세好>는 돌봄, 나눔, 섬김, 포용 이러한 속성들이 '여성적 특성'이라고 짚어내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자연적인 것으로 규정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지닌 수많은 속성 중 특정한 것을 '특성'으로 짚어내는 것은 그 특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의 수많은 속성들 중 몇 가지 것들이 여성을 대표하게 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여 여성의 특성이 '돌봄, 나눔, 섬김, 포용 등'으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성을 개개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할 뿐더러, 이러한 가치들을 자신의 특성으로 내세울 수 없는 여성을 비가시화 하게 됩니다.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적 특성'이 가리키는 그 '여성'은 누구인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학내/사회에서 돌봄, 포용과 같은 것들이 여성의 역할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MT때 여학우가 설거지나 요리준비를 도맡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好>가 '여성적 특성'을 집어낸다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다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여성적 특성'을 규정하는 작업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본명에서 드러나듯 <연세好>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녀'가 왜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성별 뿐만 아니라 나이, 계급, 인종,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굳이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누어 둘의 조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학우들의 생물학적 성 외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호락호락 문화제'의 '행복한 결혼 만들기', '호락호락 요리대회'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여 홈페이지에 문화제를 알리는 글 밑에 “커플맺기도 하냐요?” 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의도와 상관 없이 '미팅 사업', '커플 맺기 행사'로 받아들이는 학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행복한 결혼만들기

© 연세好

'남녀의 조화'에서 조화를 이야기하는 방식 역시 남녀가 '함께' 한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금남의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에는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조화'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학내에 수업, 동아리, 과/반 활동 등 남/녀 학우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둘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 합니다. <연세好>는 '남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집행부의 성비를 10명/10명으로 맞추거나 요리대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것만으로 '남녀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녀가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는 모습은 다소 강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여, 더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점은 총여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복지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연세好>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 당시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come together>에서 게재한 자보를 비롯해서 정책토론회에서도 여휴 관리문제와 <연세好>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총여학생회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은 문제제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好>는 2011년 초에 새터와 오티에 동행하면서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위터(@yonseiho)와 홈페이지를 통해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학생휴게실에는 건의사항을 받는 소리함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와 홈페이지는 사업을 공지하고 홍보하는 용도로 쓰일 뿐 소통창구의 역할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문화제'기간에는 중도 앞에 총여의 사업과 방향성에 대한 자료가 붙었음에도 총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 모든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연세好>의 본래의 기조를 흐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비판에 귀를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세好>가 학생회는 "학우들의 요청에 기반"하는 학생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방향성에 지지하는 학우'와 '그렇지 않은 학우'를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세好>의 공약과 기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논의를 이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남성중심적인 학내/사회에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간 총여학생회는 생리결석제를 제도화하고, 과/반 학생회에 성평등 내규를 배포하는 등 여학우의 교육권 확대와 성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총여의 이러한 출범의의

와 행보를 살펴보았을 때, <연세好>가 성차별적인 학내문화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고 실천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 24대 총여학생회로 선출된 <연세好 TALK>는 이전 총여학생회의 기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연세好>의 방향성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연세好 TALK>는 '소통'을 키워드로 걸고 나왔습니다. <연세好>에 대한 이 글이 중도 앞에 붙었던 수많은 자보들처럼 '방향성이 다르다'며 아무런 울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성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가고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제 23대 총여학생회장 박희진씨와의 인터뷰

『연세』 <연세好>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란 무엇인가요?

연세好 <연세好>는 여성운동이 초기에 지향했던 점을 회복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연세好>의 여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내린 결론입니다.

『연세』 총여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일이 있습니까?

연세好 대학에서 누린 것이 많은데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던 때에 총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투쟁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서 학우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총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세』 선본 소개글 문구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특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세好 글로벌한 시대에 서구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도 수평적이고 융통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세好>에서는 돌봄, 포용, 부드러움, 관용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가치들이 여성 리더십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캠퍼스에 확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여성 모두가 이래야 한다거나 특정한 이들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연세』 오늘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연세好 학내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폭력적인 언어, 공론화의 어려움, 피해자 내지 피해 사실 자체만 부각되는 점 등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